



순창군의 블루베리 분양농장이 도시민의 텃밭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블루베리 농장, 도시민 텃밭 인기

순창군, 도시민 150여명 참석 설명회 열어... 하루만에 2100주 분양 완료

순창군의 블루베리 분양농장이 도시민의 텃밭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군은 지난 13일 순창군 소득개발사업에서 순창블루베리 농장을 분양 받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구획 추정과 앞으로 운영방법 등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시민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 순창 블루베리 분양농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순창에서 추진하는 블루베리 축제 등 행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군이 운영하는 블루베리 분양농장은 구립면 사골길 37 소득개발시험포 일원 2ha 규모다.

순창블루베리는 지역 특성상 일조량

이 많고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 과실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어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올해 분양농장도 지난 3월 분양개시 하루 만에 모두 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도시민들은 본인의 이름이 적힌 블루베리를 가꾸고 수확기가 되면 가족과 함께 수확할 수 있다.

이처럼 군이 운영하는 블루베리 분양농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신선한 블루베리를 맛볼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텃밭을 가꾸며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 블루베리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주마다 가족단위 농장 체험객 300여명이 분양농장을 방문해 수확도 하

고 순창 관광도 즐기는 1석 2조의 성과를 얻고 있다.

군은 6월에 열리는 블루베리 축제에도 블루베리 분양농장 도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순창 블루베리 분양농장이 해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면서 "올해는 도시민들이 더 분양농장을 자주 들릴 수 있도록 블루베리 축제 등에 참여 폭을 넓히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블루베리 분양농장은 올해 개인당 14주~16주의 블루베리를 분양했으며 가격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등 다양한 가격에 분양을 마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민방위 재난경보 전파체계 구축 힘써

전남 구례서 규모 3.0 지진 발생 따라... 금지면사무소 내 경보시설 설치

지난 5월 5일 전남 구례군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강릉·삼척 지역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는 등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경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남원시에서는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 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지진, 풍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적 항공기, 탄도 미사일에 의한 위급상황 발

생시 즉각적인 상황 전파를 위한 시설이다. 남원시는 민방위 경보 중기계획에 발맞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이렌을 들을 수 있는 비율인 가정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남원시 내 민방위 경보시설이 남원시장, 금동 행정복지센터, 운봉읍 사무소, 인월면사무소 4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시내권과 동부권 위주로 금지면, 주생면 등 남부권 주민들은 경보를 들을 수 있는 구역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번 금지면사무소 내 경보시설 설치에 이러한 사각지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터미널, 시장 등에서 자체 방음시설로 인하여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듣기 어려워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보전파 책임자를 지정, 유사시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진 등 재난으로 디지털 유·무선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혼란이 발생할 때 아날로그 방식인 경보시설을 통한 발령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우리도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남원시, 성년의날 행사 개최

남원시는 제45회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이 된 젊은이들의 앞날을 축하하고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전통 성년례를 15일 관한루에서 성년자와 내빈 및 향교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남원향교(전교 김태관) 주관으로 열린 본 행사는 올해 성년이 되는 1998년생 학생들에게 성인으로 스스로 책임과 사명의식을 다짐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내려주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년례는 삼가례, 초례, 수훈례, 성년선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년자 40명은 관례 복장을 갖춰 입고 전통 성년례를 재현하여 내빈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이후주 남원시장은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축하·격려하면서, 꿈을 향해 성실히 노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를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성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 실내 수영장 새단장 준비

순창군 실내 수영장이 노후 배관 교체 등 새 단장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군은 오는 18일부터 샤워실 냉·온수 배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문제와 노후된 건물 외벽 도색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내수영장은 휴관한다.

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휴관기간에도 수영장 2층 여성화관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며 임시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수영장 회원은 자동연장 처리해 회원의 비용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노후배관 교체공사 이외에도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2억 4천여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5월중 청원초회 개최

임실군은 15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5월 중 청원초회를 개최했다.

심민 군수를 비롯해 실과원소장, 읍·면장 및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으로 훈시, 부패방지 교육이 진행됐다.

심민 군수는 훈시를 통해 "산불비상근무, 국가안전대진단, 도민체전, 대통령선거 등에서 말은바 소임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5월은 연초의 목표가 가시화되고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군정 추진이 필요한 시기"라며 "제3회 임실N치즈축제 총력 추진, 여름철 감염병 및 재난 재해사고 예방, 사업 조기 마무리를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청 봉사활동 '구슬땀'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형만)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형만 위원장 및 조합원 24명은 지난 13일 임실을 신정리 소재 이웃을 찾아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실내외 환경 정리를 실시했다.

특히 30만원 상당의 가구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힘든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은 "작은 행동과 정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니 너무 뿌듯하다"며 "지역 발전과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